

공동주택정보화



대림정보통신(주)/대표이사 갈정웅

사 회. 경제가 급변하면서 주거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21세기에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 주택기술, 소득수준의 발달로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한국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일찍이 개발하고 거기에 정보화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소비자들은 무선통신, 가정용 컴퓨터, 인공지능 가정용품 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각 가정들은 이런 모든 장치를 한데 통합시키고 첨단 정보 제 공을 약속 받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스마트하우스」 2000년 3월 호에 의하면 경비, 오락, 조명, 온도조절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가정은 현재 약 750만 가구, 전체 가정의 7% 정도라 한다. 이런 자동시스템을 갖춘 가정이 1995년에 200만 가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동안 미국 사회가 엄청난 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주택건축가협회에 따르면 가장 발전된 가정용 자동 시스템을 갖춘 집들은 전체 가구의 3~4%를 차지한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화와 모뎀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 경비, 조명, 오락,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가정의 정보화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홈 네트워크를 실현시키는 무선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이미 우리 나라와 일본에도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디지털 무선전화 기술을 이용해 각 방에 설치돼 있는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서로 떨어진 디지털 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와 디지털 비디오를 적외선으로 연결해 고품질의 영상까지 보낼 수 있는 무선 기술 등이 곧 선보일 예정으로 정보화의 첨단을 곧 맛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인 양키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PC 보유 가구 중에 30.5%가 자신들의 PC와 프린터, TV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택정보화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정보가전 제품의 개발과 함께

각각의 정보기기를 연결하고 이들을 묶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택기능을 단순 주거기능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또 건강과 생태 개념을 강조한 주택, 복잡한 도심보다는 전원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주생활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웬만한 일은 자동으로 처리되고 외부에서도 집안 내부를 제어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각종 홈 오토메이션 기능을 갖춘 정보화주택이 일반화되고 주부는 가사일에 소비했던 시간을 여가 활동으로 돌리고 가족과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주택의 변화를 단계별로 미리 본다면,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많이 반영하는 주거문화의 형태가 많아 부엌과 식당의 남향배치 그리고 가족생활 공간의 효율화 및 재택근무 환경을 위한 주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초고속통신망의 인프라가 80%정도 진행되며 여기에 정보의 이용 형태가 쌍방향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2003년에는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스튜디오형 원룸 아파트에서 생길 수 있는 폐쇄감을 없앤 전면 조경을 이용한 개방형 주거문화와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여 오픈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보화의 진전이 빨라져 전 가전 제품과 PC 등 모든 정보화의 통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3세대 동거형의 주택으로 3세대의 동질감과 이질감에 따른 공유공간과 독립공간으로 구성되고 홈 오토메이션을 통한 정적인 공간과 첨단 멀티시스템의 동적 구성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초고속통신망의 인프라 구축이 완결되어 지구촌의 물리적인 거리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미래 첨단 기술과 여가를 수용한 주거공간을 표현하고 첨단 과학기기 도입에 따른 주거공간의 통합화로 공간을 가변형으로 배치하면서 여가를 주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첨단 속의 자연 공간을 창조해 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에는 기능성이 제 1원칙이 돼 달이나 지하, 해저 등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캡슐형의 주택이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완벽에 가깝지만 인간의 감성적 문제 해결에는 제한이 많아 오히려 원시사회로의 퇴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래 주택의 도래는 첨단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더불어 통합된 정보 체계를 반영하고 있기에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동주택 및 사이버 커뮤니티의 도래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혁명적인 사회 조직 및 자원의 재편성이 발생되고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해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사용이 촉진되며 기술의 종속 현상이 심해져 기술 독점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술의 진보를 효율적으로 선점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어떻게 빨리 적용하며 안정된 고속의 망으로 정보의 빠른 전달과 손쉬운 정보의 접촉 접점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공동주택의 정보화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와 질 좋은 서비스의 혜택을 위해 고속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정보기술의 끊임없는 개발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해야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수요 급증 및 데이터 통신 고속수요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소비자의 욕구를 리드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손쉬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접점을 가깝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즉, 소비자의 지식가정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수요를 창출하고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구축의 핵심에 공동주택정보화가 위치하고 있다 하겠다.